



지난 17일 정읍 무성서원에서 '성균관경전소리보존회' 회원들이 무성서원 강당에 앉아 한문 강독을 했다.

선비들의 낭랑한 글 읽는 소리 퍼져

정읍 무성서원,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과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난 6일 제4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정읍 무성서원에서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7일 무성서원 현상에서는 '성균관경전소리보존회' 회원들이 무성서원 강당에 앉아 한문 강독을 했다. 30여 명의 화음으로 울려 퍼진 낭랑한 경전 읽는 소리는 서원 경관과 어우러져

또 다른 운치를 드러냈다. '성균관경전소리보존회'는 정읍향교에서 운영하는 선비문화관 한문 강독반 수강생들과 전국에서 한학을 공부하는 유림과 학자들이 뜻을 모아 출범한 단체다. 이 단체는 매달 2회씩 정읍지역에 있는 서원과 정자를 찾아서 학문을 익히고 있으며 무성서원

에서 월 1회씩 한문경전과 경전소리 공부를 하고 있다. 수석부회장인 김광규 회장은 "무성서원의 세계유산 등재는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의 경사"라며 "앞으로 무성서원에서 전통문화를 배우고 전승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무성서원에서는 서원활용사업을 통해 '최치원의 사상과 현기투의 풍류를 찾아서' 등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시, 전주의 역사와 문화 바로알기 '선비문화체험' 진행

전주시 직원들이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의 역사와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시는 최근 전주전통문화연수원 동현에서 직원 30여명을 대상으로 전주의 역사와 전통문화, 전주정신 등을 소개하는 선비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프로그램은 원도연 원광대학교 교수의 '전주 바로알기' 강의를 시작으로 △한옥마을 이야기부터 △전주 선비 정신을 만나다 △전주 소리를 만나다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먼저 '전주 바로알기' 시간을 통

해 전주의 유적과 역사, 문화와 관련된 자료를 토대로 시간 미처 알지 못했던 전주의 역사를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전주향교와 옥류마을, 자반마을, 오목대 등 골목길을 탐방하는 한옥마을 이야기 투어 시간에는 간재 전우와 삼재(금재, 고재, 유재)로 이어지는 한옥마을의 선비문화에 대해 배우고, 골목길 구석구석을 눈과 마음에 새겼다. 이어 '전주 선비 정신을 만나다' 시간에는 옛 선비들의 예절과 소풍을 배우는 '향음주례

(鄉飲酒禮)-음주예법'과 선비들의 심신수양 방법이었던 '향사례(鄉身禮)-활쏘기' 체험을 통해 선비들의 기개와 정신을 배웠다. 끝으로 '전주 소리를 만나다'는 전주가 왜 예향의 고장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소리 내 판소리를 배워보는 프로그램으로, 참석자들은 전주대사습과 전주소리축제가 펼쳐지는 전주의 소리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향후에도 전주시 직원은 물론 전주시민들을 초대해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에 어울리는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 /송효철 기자

오늘 전북가족영화제에서 '예술농부' 초대 상영전 개최

농부의 삶을 예술가의 시선으로 담아낸 완주문화재단(이사장 박성일)의 '예술농부' 영상 작품이 2019 전북가족영화제에 초대되어 오늘 오후 3시30분 전주시네마타운 7관에서 상영된다. 이번 '예술농부' 초청작은 아흔 고령의 나이

에도 제철 농작물을 꾸준히 생산하고 있는 이서면 신월마을 양양순 농부의 삶을 담은 김진교 작가의 '몸의 노래', 박유미 정재욱 작가의 '질레꽃'과 원주의 팔자락 운주면 피목마을에서 평생 농사로 삶을 일궈온 이시엽 농부의 삶을 담은 김다혜 작가의 'Before&After' 이시

엽' 총 3편으로 2018 예술농부 사업으로 제작된 작품이다. 이번 2019 전북가족영화제 '예술농부' 초대전에는 작품 감상과 함께 참여 작가와의 대화도 이어져 농부와 예술가의 밀도있는 만남과 제작 과정을 들을 수 있다. 2019전북가족영화제 '예술농부' 초대 상영전은 전석 무료로 진행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도내 청소년·대학생·직장인 등 아마추어 밴드 모여라!

익산시, '우리동네 슈퍼밴드' 참가자 모집

익산시는 오는 8월 31일 익산문화예술의 거리 근대역사관 광장에서 전라북도 생활문화동호회 밴드 페스티벌 '우리동네 슈퍼밴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아마추어 밴드 동호회의 공연 기회를 확대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재)익산문화관광재단과 (사)익산시생활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가 함께 기획하고 추진한다. 도내에서 활동하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밴드 동호회로 음반을 발매한 적이 없고 기성가수로 활동한 경력이 없는 팀이라면 청소년, 대학생, 직장인 등 소속과 연령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예선을 통과한 10팀에게는 본선 경연을 통해 대상과 우수상, 인기상, 특별상이 수여된다. 우리동네 슈퍼밴드 참가팀의 공연 외에도 도내 대표 밴드 '스타피쉬'의 축하공연과 관람객을 위한 다채로운 체험행사도 함께 준비된다. 예선 참가 동영상 접수는 오는 22일까지며 70~90년대 밴드곡 지정곡 1곡과 자유곡 1곡의 연주동영상과 참가신청서를 iksanart123@hanmail.net으로 제출하면 된다. 행사 진행 및 참가 접수 문의는 (재)익산문화관광재단 예술지원팀(063-843-8817) 또는 (사)익산시생활문화예술동호회네트워크(063-837-0717)로 하면 된다. /익산=정인천 기자

미국 카네기홀의 감동을 담아

오늘 저녁 고창동리국악당서 명창 김소라의 국악콘서트 열려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오늘 저녁 8시, 동리국악당에서 미국 카네기홀의 감동을 담아 '명창 김소라와 함께 엮는 고창풍류' 한 여름 밤의 국악 콘서트를 개최한다. 판소리의 한류화를 위해 K-PAN 브랜드를 세계에 알리고 있는 명창 김소라는 2009년 미국 시애틀 우정축제 공연, 2018년 뉴욕 카네기 쟁쟁홀에서 '판소리로 들어보는 어머니의 마음(Mother of Love)' 공연을 통해 전파적 매진을 기록하며 미국 현지인을 울리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다. 명창 김소라가 판소리의 고향이 자 그녀의 외가(外家)인 고창에서 '김소라의 소리로 풀어보는 K-PAN 국악콘서트' 뉴욕 카네기홀의 감동을 그대로 재현한다. 영어창작 판소리 'Mother of Love', 심청가 중 '심봉사 눈뜨는 대목', 적벽가 중 '군사설움 대목', '이리랑 연곡' 등 국악양상을 '너울소리'와 함께 고하인, 김진무, 조은영의 편곡으로 무대를 장식한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창작판소리 '방귀쟁이 마느리'를 비롯해 김소라의 판소리 가사 해설과 '함께 놀기', '함께 부르기' 등 관객과 소통하는 다양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K-PAN 국악콘서트에 앞서, 고창풍류에서는 소리와 춤으로 풀어내는 고창풍류(신밧노래, 성주풀이), 거문고와 태평소



번주에 의한 춤의 풍류향량, 아쟁 시나위에 의한 허튼 춤을 동리문화예술단이 함께 하며, 류희경 명창이 춘향가 중 '사랑가'로 소리의 향연을 펼친다. 동리국악 테마공연-한 여름 밤의 국악콘서트 '명창 김소라와 함께 엮는 고창풍류'의 공연 관람료는 무료이며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